



#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터뷰 놀이, 동화 읽고 지점토로 표현하기, 벽 신문구미기등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즐거움 도서관 체험' 행사를 연다. 장애체험과 e-book 체험도 마련된다. (02)736-891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멕시코의 역사와 문명에 대해 살펴보는 '멕시코 문화 여행' (27일) △영화 및 음악 프로그램(매주 토) △'봄·여름·가을·겨울'의 세시풍속'전(25일까지) △영국 일러스트레이션전 '매지 펜슬' (4월2일까지)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2)3451-0800

###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연화아동상담센터에서는

놀이치료사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아동학, 아동복지학, 사회복지, 심리학 등 관련 학과 졸업생이나 대학원 재학생 대상.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oksooc.or.kr)에서 다운로드. 서류 접수 2월 23일까지. (02)2282-1108

###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는

생명이 움트는 3월 '사랑의 꽃씨 나누어 주기'를 시작으로 종이접기, 토끼이리, 꽃누르미 체험교실을 연다. 특히, 3월부터 난치병 환자 어린이환우 돕기 음악공연을 후원하여 조성된 기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051)809-0251

### 재단법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에서는

작은배움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학습증진, 소양개발, 진로교육, 현장체험 등 교육소의 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선정, 지원한다. 지원신청서 접수는 재단법인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eopportunity.or.kr)에서. 2월 26일까지. (02)727-5400-6

### '제63회 코믹월드 서울'이

2월23일~25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아마추어 만화가와 만화가 지망생들이 작품을 소개하고 교류하며 만화를 스스로 창작 및 판매,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3142-2137-8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현장



아이는 엄마에게 가슴 속에 있는 애기를 털어 놓으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는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 속으로 울고 있다.

# “있는 그대로 보면 마음 행복”

2월 11일 일요일. 쉬 나른해지는 오후 3시, 서울 대치3동문화센터 강당에 청소년과 학부모 30여명이 속속 모여든다. 본지가 마련한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들어서는 아이들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 예비 고3이다 보니 초조한 기색이다. 반면 아이들의 부모는 기대 반 근심 반인 눈치다. 부모들은 이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부모님을 알아서 오셨는데 오늘이 자리에 왜 왔는지 아이에게 설명해주세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 가벼운 준비 대화를 지시하면서 이날 강의가 시작됐다. 승구엄마 윤초순(서울 삼성동·46)씨는 일 때문에 바빠 아들과 대화하지 못한 것이 늘 맘에 걸렸다.

“너를 억지로 데려오긴 했지만 엄마의 어떤 점이 승구를 힘들게 하는지 알고 싶어.”

이 때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도 들을 때도 모두 자신만의 '자비'를 버리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을 허물고 순조로운 대화를 향해 달려가는 첫걸음이다.

“자, 이제 앞으로 나와서 두 무리로 나눠 원을 만드세요. 오른쪽, 왼쪽 옆 사람을 잘 확인하고요. 다음에는 자리를 이동합니다.”

갑작스레 '역선'이 필요해지자 아이들과 부모 모두 당황한다. 더듬더듬 스님의 지시대로 원을 만들고 자리도 이동한다. 자리가동 후에는 왼쪽에 있던 사람의 왼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의 오른손을 찾아 잡는다.

다. 이리저리 꼬여있는 손을 풀어 다시 처음의 원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한 군데 틀려 제대로 임무 완수가 되지 않으면 누가 엉터리로 손을 잡았는지, 'X'엔 이 드러난다. 옆에 있는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놀이. 생각 외로 재밌다.

## 자신만의 '자비' 버릴 것 강조 인연 고리 만들며 공감대 형성 껴안고 호흡느끼며 마음 나뉘 “사랑한다는 말 할 수 있어 행복”



아이들의 굳은 얼굴도 슬슬 풀려간다.

그 때 스님의 다음 지령이 떨어진다. “원 안에 한 사람씩 들어가 앉으세요. 같

이 온 부모님이나 아이가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가족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팔팔출'이라 하지만 이날만큼은 상관없다.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멋있는 우리 가족이 아닌가. “엄마는요, 요리를 잘 하시구요 항상 몸에 좋은 것만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는요, 건강하고 친구도 많아요. 자기 일도 잘 해내고요.”

칭찬이 줄을 잇고,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 괜히 흐트러진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나온다.

마음이 서로 통했다면 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때, 서로 쿵다쿵다 심장 뛰는 소리를 느껴볼지 참 오래됐다. 마가 스님이 효과적으로 서로를 껴안는 방법을 제시한다.

“눈을 감고 가만히 서로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생각은 하지마세요. 가슴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제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만져줍니다.”

마무리는 간단한 걷기 명상과 스님이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하는 “당부”다.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좋아요. 공부·이성교제·운동 등 구체적인 사항들 중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 위에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자세입니다. 아이가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상태, 그 자체를 고마워하세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육신이나 못이론 꿈을 대신 실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을 풀고 평온해져야 아이도 평상심을 찾아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 이영란(43세)과 딸 설이(부흥고 3)의 손을 잡은 백규현(안양시 부흥중·47)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아이의 생각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 직접 체험이 많아 더 좋았습니다.”

이날 남달리 눈물이 많았던 딸 설이도 수줍게 소감을 밝힌다.

“엄마아빠에 대한 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거랑, 따뜻하게 안겼던 거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 마



##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안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발전시키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달임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 ■ 중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중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생 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중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중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편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중립 종교교생 눈술 경시대회

눈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립 종교교생들의 눈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눈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눈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중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성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아!”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오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 2007학년도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전기 신(편)입생 모집

### 귀의상보호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7년도 전기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 좀 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점 및 작법 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불자님·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승수 -

### ①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과정	예경의식 및 조·석 예법, 불공시식	20명	6개월
전통의식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천도재, 점안 및 제공의식, 전통교육	20명	1년
요점·작법과정	바리춤, 나비춤, 법고 등 서물 다루는 법	10명	6개월

### ② 응 시 자 격 :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 찾아오시는 길

### ③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면접)

### ④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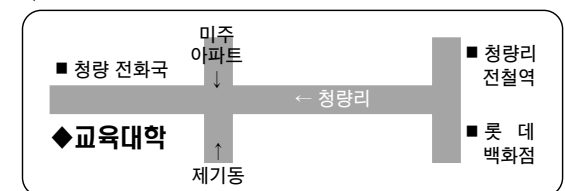
### ⑤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 2) 수계증명서 사본
- 3) 반명함판 사진 4매

###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 접수일자 : 2007년 2월 12일 ~ 3월 5일

### ▶ 입 학 일 : 2007년 3월 7일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전통의식 교육대학